

6) 야 구

야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가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지도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야구에 대한 명칭은 타구라고 하였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야구경기는 1906년 2월 17일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 회원과 독일어학교 양팀이 훈련원 마동산에서 대결한 경기로 독일어학교팀이 승리하였다. 그후 국내 각 학교간의 야구경기가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는 운동부 창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지도, 장려하였다. 야구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사건은 1909년에 일어났다. 윤기현은 훈련원의 운동부장으로 25명의 운동부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을 방문한 동경 유학생 야구단과 팀을 이루어 서울에 있는 서양선교사 야구팀과 7월 21일에 대전하였다. 이에 우리 유학생팀이 서양선교사팀을 19 대 9로 크게 물리쳐 장안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유학생팀은 그해 7월 24일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안악·철산 등에서 야구지도를 하였다.

순천에 야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21년경 중앙고보에서 야구선수를 지낸 이곳 출신 정문기 선수에 의해서이다. 그후 그는 일본에 유학, 동경제국대학에서 야구선수로 활약하다가 방학때면 고향인 순천에서 야구를 비롯한 정구 등 각종 운동을 보급하였다. 당시 정문기는 고향 선후배와 친지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는데, 김형식·조일송·노봉호·이영춘·정일택·이수호·최승진·오명래 등이 그들이다.

이때부터 지금의 매산중학교와 향교의 목정밭에서 여수팀 대 순천팀의 경기가 해마다 개최되었고, 정문기의 스피드한 묘기가 나올 때면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트리며 격려를 보내주었다. 24세로 동경제대를 졸업한 정문기는 재학 당시부터 일본에서 야구선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곰보피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현재 그는 서울대 교수(어류 전공)를 거쳐, 정년퇴직하였다.

이때의 야구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주로 취미활동으로 행해졌다. 1930년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순천 야구부가 창단되었다. 1962년 7월 21일 제3회 도지사기쟁탈 4개 시대항 야구대회가 순천남교에서 개최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순천 우체국팀이 창단되어 활동하였다. 1985년 10월 순천상고 야구부가 창단되었으나 자금난으로 1988년 해체되었다. 현재는 삼산초등학교·이수중·효천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다.